

조선내화 옛 목포공장 부지, 복합문화시설로 조성

목포시-조선내화 업무협약 전시관·박물관·공연장 등

목포시 관문인 목포항 인근 조선내화(주) 옛 목포공장 부지가 복합문화시설 공간으로 조성된다.

목포시는 지난 14일 조선내화(주)와 온금동 옛 조선내화 목포공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내화(주)는 목포공장을 시작으로 70여 년간 내화물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집약적인 기술개발에 앞장서 왔으며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발달과 함께 성장한 국내 제일의 종합내화물 제조업체이다.

조선내화(주) 옛 목포공장은 1990년대 가동을 멈췄으나 일부 건물과 시설물이 근대기 산업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목포시와 조선내화(주)는 옛 목포공장 부지 역사적 가치를 살려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목포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 협력을 다짐하고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복합문화시설은 전시관, 박물관, 야외공연장,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며 수협위판장 북항 이전 후에는 해안로 일대 새로운 관광문화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 14일 조선내화(주)와 온금동 옛 조선내화 목포공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목포시 제공

박홍률 시장은 “조선내화 옛 공장의 문화재적 가치를 살리면서 앞으로 조성될 복합문화시설 건립에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안전점검 무안군, 안전사각지대 해소

무안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선정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규모 생활밀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건축물 등이 있다.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법적 의무점검대상 시설물 등은 제외된다.

이번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는 신고 기간 동안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4~6월경 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고 신청방법은 국민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해남군, 28일까지 접수

해남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작물 육묘 또는 농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분과 기후환경요금 등을 포함한 실질 인상액의 50%인 9.05원/kWh를 정액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으며, 해당 농업인은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조회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한전에서 개인별 사용량을 확인 후 오는 3~4월에 개인별 계좌 입금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완도군 소통 메신저 '군민 SNS 기자단' 떴다

군정 소통 메신저가 될 '제4기 희망완도 군민 SNS 기자단'이 출범했다. 기자단은 올해 연말까지 군정과 주요 행사, 축제, 해양치유 체험 등 다채로운 소식을 취재해 홍보할 계획이다. 완도=군 제공

초당대 심폐소생술교육센터 개소 전문자격 이수과정 운영



초당대학교는 일시적인 심폐기능부전 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기초 의료기술을 보급하는 전문 교육기관, 심폐소생술교육센터(센터장 김혜숙)를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초당대는 세월호참사와 10·29참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한 범국민적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폐소생술교육센터 개소를 추진했다.

심폐소생술교육센터는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인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항공학부, 창업융합학부, 공공행정학부 등 일반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교육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교육과정은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으로 가슴압박, 자동제세동기 작동지식 등의 이론과 실습수업으로 운영되며,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수료증을 발급받게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해남군 '해남형 ESG 윤리경영' 확산 속도 높인다

지속가능한 군정발전 체계 구축

해남군이 민선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남형 ESG 윤리경영'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형 ESG 실현을 위해 정경환경(E)·안전사회(S)·신뢰행정(G)의 운영방침을 세우고 군정 전 분야로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군정발전의 성장체제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분야 74개 실행 과제 발굴에 이어 계량화 할 수 있는 71개 지표 45개 민·관 협업과제를 실행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민 주도형 ESG 공



해남형 ESG선포식 해남군 제공

모사업과 함께 친환경 착한여행, 사랑의 걷기 등을 추진해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해남형 ESG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군민 인식개선과 ESG 문화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해남형 ESG 군민 동행 프로젝트와 ESG 월별미션 등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군민 공감대를 넓히고, 분야별 실천 과제를 통해 생활속 ESG 실천에 동참

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군은 전 사회적인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ESG를 행정에 도입하면서 ESG 실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해도 군정의 전 분야에서 해남형 ESG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목포시, 개항문화거리 도보관광 활성화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의 도보관광 활성화에 심혈을 쏟고 있다.

목포시는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와 시범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보관광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일환으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문화자원과 도시재생 주요시설 등을 중심으로 도보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1897 개항문화거리 도보여행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사진)

도보 여행은 총 5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목원동과 만호동 일원의 도시재생여행 △1897년 개항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근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구 목포세관부터 목포항 등 경

계지역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근대항구여행 △근대역사관 등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 근대뮤지엄여행 △목포 배경의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찾아가는 필름 속 목포여행이다.

가이드북에는 1897 개항문화거리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기호와 시간에 맞춰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당 코스별 도보 소요 시간 안내 등 목포를 처음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도보여행 가이드 북은 목포근대역사관·2관, 관광안내소, 관광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배부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친환경·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신안군, 전국 최초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24년부터 전국 최초 농업용 일반 멀칭비닐 사용 전면 중단 방침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수, 군의원,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을 위해 열린 토론회를 진행했다.

군은 지난해 일부면적에 대한 생분해성 멀칭비닐 사용 결과 폐비닐 수거의 노력이 절감되고 농작물 수량과 품질의 차이가 없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작물의 수확 후 토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2023년에 보조비율을 70%~80%로 대폭 상향, 600ha 면적에 우선 확대 보급하고 농가와 토양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등 준비기간을 갖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생분해성 멀칭비닐의 효과가 인정된 만큼 관련 TF팀을 구성해 후속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